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716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8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주문

-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현행법령에 따르면 경유, CNG, LPG 등을 사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와 이산화탄소 배출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택시에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지급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와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 나. 기 타 : 없음

4. 이 송 처 : 국회, 국토교통부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71,730대로 이 중 평균적으로 일일 42,042대가 운행하고 있고 연간 주행거리가 41억 km 에 달하지만, 대기오염 개선 및 환경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현재까지 도입한 환경친화적 택시는 전기 차량 4,921대, 수소 차량 18대, 하이브리드 차량 1,094대 등 총 6,003대로 전체 택시면허대수 중 약 8.4%에 불과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친화적 택시의 추가적인 도입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전기 및 수소 차량과 다르게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에 비교적 자유롭고, 연비 역시 높아 '22년 6월 기준 일반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이 15%까지 증가하였으며, '21년 6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의 생산, 사용, 폐기과정을 고려한 LCA(Life Cycle Assessment, 전주기적평가)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 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일만큼 친환경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 지원되었던 보조금이 폐지되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택시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택시 차량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택시 차량 구입시 환경친화적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외면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기·수소 차량의 충전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충전 인프라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택시 확대 및 보급을 위한 충분한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

'22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택시면허대수가 249,063대임을 고려할 때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택시운송사업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환경문제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바 서울특별시의회는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화석연료 차량 이외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유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